

한길로 법사의 한길사상*

이성운(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학술연구교수)

한글요약

이 논문은 “진리를 찾아 한길로 나아가려는 구도자”였던 한길로 법사의 교화 사상을 살펴본 글이다.

한길로 법사는 1919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나 1996년 경기도 남양주 봉인사 한길정진원에서 생애를 마감했다. 17세에 입산(入山)하여 수행하고 30대 초반 다시 출산(出山)하여 중생교화와 경전 번역에 평생을 바쳤다. 한길로 법사가 재가법사로서 평생을 교화와 역경의 한길로 정진할 수 있었던 것은 대승경전의 골자에 대한 탁월한 이해와 깨침으로 말미암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법신과 화신의 대한 불이(不二)관은 그로 하여금 출가와 재가의 차이조차 무화(無化)하여 평생을 재가법사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였다. 그에 기초한 실천적 이념으로 불교의 ‘삼보’를 ‘밝게 · 바르게 · 착하게’라고

* 이 글은 2016년 8월 6일에 개최된 광혜군 추선기념 제8회 학술세미나 겸 한국불교사연구소 제14차 집중세미나(주제: 조선후기에서 대한시대로의 불교사적 전환)에서 발표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탁월하게 해석하여 ‘명정선(明正善)’의 가르침으로 제시하였다. ‘밝게·바르게·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일어나 앉으라고 하고 있다. ‘앉아서 정신을 가다듬으면 곧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라며 평소의 끊임없는 실천을 강조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삼보로 살아가는 불자의 큰 길로서 누구나 같은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는 실천적 삼보관을 보여주고 있다.

‘밝게·바르게·착하게’ 넓고 큰 한길로 모든 중생들과 도반이 되라는 한길로 법사의 열반송으로 전하는 그의 부촉은 현재 봉인사와 한길로정진원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주제어 : 한길로 법사, 명정선, 교화, 역경, 봉인사, 실천적 삼보관

목 차

- I. 출산 이후
- II. 법·화신의 불이(不二)
- III. 명정선의 한길[一道]
- IV. 유업 계승

I. 출산 이후

현실의 욕망을 조절하며 살아가는 세계를 세간이라고 하고, 이곳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떠나 불문에 들어 마음을 닦는 것을 출세간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출세간에서 도를 닦은 수행자가 세간으로 다시 나오는

것을 무어라고 하는가. 잘 알듯이 하산 혹은 출산, 퇴속 또는 환속이라고 한다. 하산이라고 할 때의 출세간은 산림과의 동의어라고 할 수 있고, 퇴속이라고 할 때 출세간은 성스러운 곳으로 설정되어 세간으로 돌아갔음이 드러나며, 환속이라고 하면 본래 주하는 곳으로 돌아왔음이 잘 드러난다. 그러다 보니 퇴속은 출가자들이 애용하는 어휘이고, 환속은 재가에서 상용되는 어휘라는 느낌이 풍긴다. 그리고 하산은 입산의 대어로 ‘하늘 땅 사이에 함께 할 도반을 만나기 위해 황엽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올 수밖에 없노라’고 하는 출산게송¹⁾의 설파가 가슴 깊이 스며오는 그런 어휘이다. 이 출산게송은 중생 제도의 선언이기도 하다.

초입부터 웬 말장난인가, 무얼 가르치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독자의 마음 한편에 일기 전에 각설하고 본론하자면 이렇다. 오늘 우리가 그 속내를 들여다보아야 할 이가 바로 ‘법사’이기 때문이다. 법사(法師), 중국불교에서는 현재 출가 승니를 법사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원효 법사, 의상 법사, 제관 법사라는 지칭에서 확인되듯이 출가 승려를 법사라고 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불교의 실정은 어떤가. 고승열전이나 거사열전 같은 기획기사는 접할 수 있지만 법사열전은 기획되지 못하고 있듯이 법사라는 명칭은 고승을 지칭하는 대칭이지 그 범위나 지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특별히 규정하려 들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법화경을 염송하는 브하나까(bhāṇaka)를 ‘법사’라고 하는 데서 착안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일부 법화종단에서는 출가 승려를 법사·대법사라고 칭명하고는 있으나 한국불교의 주된 흐름이라고 하기는 언필칭 어렵다고 하겠다.

몇 년 전 <불교신문>에서, 한길로 법사와 같이 범문 등을 통해 전 생애를 불교 흥포에 전력하신 분들을 다룬 ‘재가열전’이라는 기획기사가 연재된 적이 있다. 물론 한길로 법사는 들지 않았지만 거기서 다뤄진 분들

1) 出山偈: 嵬嵬落落淨禿禿 獨步乾坤誰伴我 若也山中逢子期 豈將黃葉下山下

은 대부분 당시 사람들이 ‘법사’라고 익히 알고 있고 부르던 분이였다. 법문 등을 통해 법회를 하시는 ‘법사’님들이었지만 법사로 호칭되지 않았다.²⁾ 소개된 재가불교인들이 특정 종단 소속은 아니지만 특정 종단이나 단체에 소속되었다고 보이는 이들은 다루지 않았다고 보이며, 법사라고 지칭하지도 않고 있음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현재 조계종 일반에서는 설법을 하는 스님, 혹은 건당을 한 스님을 법사라고 지칭한다. 지금은 열반한 조계종의 유명법사였던 무진장으로부터 법사의 기준에 대해 ‘스승으로부터 법력을 인정받아 건당을 하여 일가를 이룬 이’여야 한다는 법문을 누차 들은 적이 있다. 이는 공식적인 언급은 아닐지라도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불교종단인 조계종 스님들의 인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관심은 한길로 법사이다. 이제 한길로 법사에 대해 말머리를 돌려보도록 하자.

한길로 법사는 17세에 출가하였다고 한다. 1919년에 태어났으니 1935년경이라고 보인다. 청양에서 태어나 멀지 않은 갑사로 가서 영길 스님을 은사로 수계 득도하였고, ‘인범(忍範)’이라는 법명을 얻게 되어 철수(喆洙)라는 속명은 삶의 뒤안길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겠다. 마곡사 강원에서 수행 정진하고 일본에서 수학했다. 당시 사찰에서 우수한 승려들을 선발하여 선진학문을 배워오게 한 것의 일환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도탑비나 봉인사의 중창주 한길로 법사를 소개하는 글에 구체적인 이력의 과정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³⁾ 1996년 음력 7월 18일에 봉인사 한길정진원에서 입적하였으니 이제 20년이 지났고, 법신과 육신의 많은 자제들이 생존

2) 2005년 1년 동안 <불교신문> ‘재가열전’이라는 코너(필자 어현경 기자)에 부설거사를 필두로 이차돈, 이자현, 이규보, 김옥균, 김대현, 김기추, 이희익, 이재열, 김어수, 고익진, 우정상 등 48인의 한국불교 재가의 학자, 불자들을 소개하는 특집이 연재되었고, ‘거사로 호칭되고 있다.

3) 寂鏡, 『봉인사』(천마산 봉인사지 편찬위원회, 2005), pp.327~336.

하고 있으니 향후 잘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 좀 더 깊이 밝혀 내지 못하고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한다. 8.15해방 이후 인범은 귀국하여 덕숭산 정혜사 만공 회상과 오대산 월정사 한암 회상에서 용맹정진을 하며 수행과 출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기회를 갖게 된다. 『알기 쉬운 불교입문』(1979)에서 옛날의 부끄러운 고백이라며 오대산 월정사에서의 수행담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다.

나는 한창 나이 20대였다. 오대산으로 방한암 스님을 찾아가서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一歸何處)'라는 화두를 배워가지고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하루 여덟 시간씩 좌선을 하였다. 화두를 생각해 보면 의심이 안 되는 것은 아니나 그것이 심각하고 절실한 것이 못되어 그 화두는 곧 달아나고 딴 잡념들이 들어와 판을 치곤하였다. 10년 20년 이상을 선방에서 늙은 구참 선승이라는 분들이 마치 시르죽은 누에와 같았다. 용기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좌선 시간에는 앉아서 졸다가 방선을 하면 잡담을 하는데, 그 잡담 또한 고상하지 못했다. 화두가 전일하지 못해 곁에 있는 노장스님께 '스님은 화두가 잘 되십니까?'라고 묻자, '그게 그렇게 쉽게 되면 벌써 견성을 했게!'하고 아주 예사롭게 안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투의 대답을 하였다. 구참 납자들을 볼 때 한심하였고, 좀 말마디나 하고 난 채 하는 수좌들이 전문답을 한다고 시큰둥한 수좌들을 하는 것을 보면 가관이었다. 여전히 어리석고 탐심이 있고 신경질적이고 게다가 게으름은 보통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분들이 제법 한 소식을 통한 것처럼 조사어록이나 몇 구절 귀동냥한 것을 가지고 엉뚱한 수좌들을 하는 것을 보면 한심하였으며, 한편으로는 불쌍한 생각도 들곤 하였다.⁴⁾

4) 한길로 편, 『알기 쉬운 불교입문』(보련각, 1979/1983), pp.123~125.

그렇다고 인범이 당장 선방을 박차고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오대산 상원사 선방에 방부를 들인 그 해 겨울이 오도록 수행이 진전이 없자, 동안거부터는 가행정진을 해제 때까지 계속한다. 가행정진은 하루 네 차례의 사분정진에 정진을 추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술시가 되어 취침한 뒤에 다시 일어나 법당으로 가서 자정까지 앉아 있다가 돌아오는 것이었다. 해제 때까지 가행정진을 하였지만 인범에게 돌아온 것은 추위로 인한 냉병과 상기병을 얻게 된 것뿐이었다. 삼동을 헛노력으로 마치고 인범은 잠과 망상의 세계에서 헤매다가 선방을 나와, 근기에 대해 깊이 고뇌하게 된다. 상근기는 참선으로 도를 깨달아 지견을 얻지만, 선문에서 낙오된 자신과 같은 하근기의 중생들에게는 용수와 마명, 서산 대사 등이 권한 염불 기도에 의지해야 한다는 데에 눈뜨게 된다. “우리와 같은 하근의 범부, 일자 무식이 믿으면 구제받는다”는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며, 아무리 상근의 사람들에게는 저속할지라도, 우리들을 위해서는 최상의 가르침입니다. 여타의 교법이 뛰어나다 하여도, 우리 자신에게는 능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⁵⁾라고 하는 일본불교 정토진종의 개창조 신란의 설과를 다시 듣는 듯하다. 이후 인범은 참선정진에서 염불기도라는 수행법의 일대 전환이 왔다고 보인다. 동국대학에서 다시 현대학문을 수학하였고, 6.25라는 민족상잔 시기에 수행과 교화의 방식이 대전환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인범은 하산으로 출산하여 세간에서 집안을 이룬다. 육친이 정해준 한철수의 삶이 시작된다. 그의 자손이라는 흔적이 이를 증명한다. 그의 자손은 번성한 편으로 보인다. 아들만 다섯을 두었고 외손까지 그의 부도 탑비에 적혀 있다. 그렇다면 한철수의 삶은 언제부터 한길로의 삶으로 전환되는가.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 <봉인

5) 惟圓 原著·前田 龍 譯; 田大錫 옮김, 『歎異抄』(경서원, 1997), p.59.

사 중창주 한길로 법사)에서는 생략되어 있는 여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한 인물의 삶을 알고자 할 때 약력은 중요하다. 그에게 어떤 삶의 굴곡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약력 속에 생략되어 있는 삶의 여백이다. 비록 기록은 되어 있지 않고 해도 그 여백은 한 인물의 고뇌와 결단을 읽게 해주는 단서를 주기 때문이다.”⁶⁾ 그렇다. 여백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그 가치가 감손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의 하산이 문제의식에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스스로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하고 있지만 하근기 중생의 구제에 적합한 열불기도와 근기 낮은 중생들의 보처인 산 아래 세속으로의 하산은 그에게는 출산이었다. 출산, 산에 든 이가 산을 내려오는 길은 단 두 가지뿐이다. 수행의 포기이거나 수행의 완성이다. 더 이상 수행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산을 내려온다. 또 수행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도반을 찾아야 한다. 높디높은 청산에 홀로 수행을 하는 것이 무의미해진 것이다. 출산 계승은 인범의 하산을 잘 표현하고 있다.

崑崙落落淨裸裸 높디높고 빼어난 청정한 난야
 獨步乾坤誰伴我 천지간에 홀로 걷는 나의 도반 님인가
 若也山中逢子期 산중에서 자기를 만났다면
 豈將黃葉下山下 어찌 황엽 들고 산 아래 내려가랴.⁷⁾

채워지지 않은 여백이 있다고 해서 출산한 인범이 곧바로 ‘한철수’로 귀환했다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저간의 사정으로 볼 때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닌 ‘한길로’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세간과 출세간의 드러나는 대

6) 寂鏡, 『봉인사』, p.328.

7) 『五種梵音集』(『한국불교전서』12, 동국대출판부), p.158상.

표적인 차이의 하나는 혼인이라고 할 수 있다. 1950년 전쟁 중에 출산을 단행한 한철수는 장채분과 집안을 이루고 효창의숙이라는 고아원을 운영하게 된다. 생사와 기아 등 인간 생존의 최 일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전개되는 시점에 산을 나온 수행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눈앞에서 생생하게 전개되는 죽어가는 생명의 구원이요, 길 잃은 어린 아이들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산 이후 그의 선택지가 효창의숙이라는 고아원 운영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아직껏 확인하지는 못했다. 결국 출가자 인범은 출산을 통해 출가와 출산의 두 길을 ‘한길로’ 무화하는 생애의 대반전을 맞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길로 법사가 언제부터 한길로 법사로 자칭 호칭되었는지에 대해 좀 더 살펴야 하지만 어쨌든 이후 한길로 법사의 삶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으며, 그의 삶은 ‘역경’과 ‘교화’라는⁸⁾ 키워드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출가에서 출산으로 전환한 인범이 철수에서 한길로 법사로 세상에 그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역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동국대학교 역경원의 초기 번역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기 전인 1963년에 그는 『육조단경』을 번역해 낸다. 이 출판을 통해 한길로 법사의 명성은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초대 역경원장인 윤희에 발탁된 것이다. 또 봉선사 말사인 견성암 주지를 살게 된다. 그래서 한길로 법사가 오늘의 한길로 법사로 있게 된 것은 순전히 그의 번역 실력에서 연유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출산 이후 효창의숙이나 봉인사 한길정진원의 중창과 창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한 법사의 대중교화가 법사로서의 위격을 갖게 하는 데 적지 않은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지만, 아무래도 탁월한 그의 역경 실력은 한길로 법사를 한길로 법사로 알려지게 한 결정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다. 그는 1965년 『반야

8) 寂鏡, 『봉인사』, p.328.

심경』⁹⁾에 이어 『현토선문촬요』, 『주해수능엄경연독』, 『불설삼세인과경』(1982), 『지장경강설』(1993) 등의 경전과 『알기 쉬운 불교입문』(1979), 『무가애』(1990), 『한길법화』, 『걸림 없는 길』 등을 저술하였고, 『불교성전』(1981)을 편집·번역하고, 『마음과 몸과 운명』(1975)을 번역하였다.

그렇다면 역경과 교화에 ‘한길로’ 정진한 한길로 법사의 사상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사후 20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법신의 자손〔제자들〕과 육신의 자손들이 생존하는 현실과 논문의 발표 현상이 생전에 그가 재창건하여 일군 봉인사·한길정진원이라는 사실조차 잠시 떠나, 가능하면 그의 저술 『무가애』 등에 보이는 사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II. 법·화신의 불이(不二)

불교가 처음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 붓다는 고포타마 싯다르타가 붓다를 이룬 석가모니에 한정된다. 이후 붓다의 육신이 입적하고 그를 따르는 이들은 붓다를 추모하는 마음에 탐을 세우고 그를 공경하며 그의 말씀을 되새기며 따른다. 불제자들이나 신자들에게 절대적 존숭과 신뢰를 받았던 석존의 입멸은 붓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탐구하게 한다. 하나는 석존을 대신하는 붓다에 대한 탐구이고, 하나는 불신(佛身)의 영원성을 구하여 그 속에서 석존의 위치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붓다 중심의 불타관과 법 중심의 불타관이 그것이다. 그 결과 불멸의 진리, 보편인 법 그 자체를 붓다의 실신(實身)이라고 생각하는 법신(法身, dharmakāya)이 성립되고, 이에 대해 입멸한 현실신(現實身)인 색존은 색신(色身, rūpakāya)이라고 불리게 된다.¹⁰⁾ 이후 대승불교가 발달하면서 불타관은 다양

9) 〈불교신문〉3044호, 2014.9.27. [근현대불교출판 역사] 1980년대 (4).

하게 변천되었고, 현재 범신·보신·화신의 불타관이 한국불교에는 널리 수용되었다. 한길로 범사 또한 일반 독자들을 위한 개론적인 불교의 설명을 위해 편저된 『불교입문』의 붓다를 소개할 때는 범·보·화 삼신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¹¹⁾ 어디까지나 불교개론을 설명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길로 범사의 붓다관을 보여주는 자료로 『불교성전』의 편찬 차서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초입에 범신과 응화신을 ‘부처님의 두 몸’이라고 항목을 설정하여 그 의미를 자상히 소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불교의 성전을 편찬할 때 가장 먼저 붓다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한다. 붓다가 없는 불교는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서 불교의 성전을 편찬하고자 하는 이들은 맨 먼저 붓다가 누구인지에 대해 독자들에게 알려주게 되므로, 대부분의 성전 찬자들은 그 첫 항목에 붓다에 대한 전기나 그 전기가 실려 있는 경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소임을 다하려고 한다. 한국불교계에 처음 등장한 종합 불교 경전 모음집인 ‘불교성전’은 동국대학교 역경원에 의해서였는데, 이 『불교성전』(1972)에는 붓다에 대해 ‘부처님의 생애’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편찬되어 있다.¹²⁾ 또 한길로 범사가 편찬한 『불교성전』 이후 편찬된 『통일불교성전』(1992)에는 ‘수행본기경·육도집경·현우경’ 등 붓다의 생애가 실린 경전을 편집하여 그 역할을 하고 있다.¹³⁾ 이 같은 점이 한길로 범사에 의해 편찬된 『불교성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길로 범사는 단순히 하나의 붓다관을 설명하려는 의도로

10) 平川彰 外 編; 鄭承碩 譯, 『大乘佛敎概說』(김영사, 1984/1995), pp.184~187.

11) 한길로 편, 『알기 쉬운 불교입문』, pp.18~24.

12) 성전편찬회, 『불교성전』(동국역경원, 1972/1978), pp.1~74.

13) 통일불교성전 편찬위원회, 『통일불교성전』(대한불교진흥원, 1992/1994), pp.9~170.

성전의 첫머리를 꾸몄을까. 이에 대한 답은 한길로 법사의 ‘출산’과 ‘교화’ 등에서 읽힐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거기서 확인할 수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사는 『불교성전』의 첫 대목에 부처님의 두 몸 가운데 법신에 대해 ‘도일명경, 화엄경, 불경계경, 금강경, 문수문경, 열반경’ 등의 경전 13곳의 경구를 추출하여 제시하고 있다. ‘부처님의 한 법신이다. 여래의 몸은 곧 법계신이며, 금강신이며, 파괴할 수 없는 견고한 몸으로서 온 누리에 가장 승묘한 몸이다. 여래는 어디서 오는 일도 없고 또 가는 곳도 없기 때문에 여래라고 한다.’¹⁴⁾ 이에 비해 인연 따라 육신으로 응화한 붓다에 대해 이해한다. 하나 근본적으로 여래는 법신과 화신의 두 몸을 가지고 있으며, 육신은 멀도하지만 법신은 항상 존재하며, 법신은 중생의 뜻에 따라 형색으로 나타나되 그 한 붓다의 몸이 곳에 따라서 한량없는 붓다로 화현한다는 말씀을 의지한다.¹⁵⁾ 법신과 화신이 겹으로는 두 몸인 것 같지만 사실은 화신은 중생의 뜻에 따라 형색으로 나타나는 화신이라고 이해하고 믿고 있다고 하겠다. 이 같은 붓다관은 한 법사로 하여금 출가와 출산의 문제가 아닌 화신의 응현이라는 관점으로 수용된다. 결국 어디에서 어떤 모습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중생의 뜻에 따라 응하는 보살의 행원이 있을 뿐이다. 그 행원을 실천함에 장소나 모습은 결코 걸림이 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사심(私心) 없으면 걸림도 없다”고 한 법사의 비교적 후대 저서 『무가애』의 속 표지화에서 논파되고 있다. 두두물물(현실)에 걸리고 걸리지 않는 것은 사심의 여부에 있지 장소와 모습에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한 법사는 적지 않은 경전을 번역하고 편저하였다. 각 책의 서문 등에서 “혹자는 내가 스스로 한 창작이나 한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내 견해도 내 말도 아니어서 결코 이걸 내가

14) 불교성전간행회·한길로 편역 교정, 『불교성전』(보림각, 1981/1982), pp.37~144.

15) 한길로 편역 교정, 『불교성전』, p.33.

지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¹⁶⁾고 갈파한다. ‘술이부작(述而不作)’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경의 실상이 아니라 제 병의 그림자이오니 제 스스로 송구하을 뿐, 성현께 추호라도 허물될 리 없”¹⁷⁾다고 하며 책을 출판하게 된 것은 “오직 천하의 선지식 앞에 드러어 제 병의 진단을 청하려는 것”¹⁸⁾이라고 겸손해 하며, “진리를 찾아 한 길로 나가려는 구도자의 입장에서 오직 두려움과 경건한 마음으로 이걸 삼가 삼보 전에 바치”¹⁹⁾겠다고 서원한다. 그리고 스스로를 구도자/수행자라고 정의하며 그 생활을 놓지 않고 있다.

한 법사는 출산하여 재가의 삶을 살았다. 법의 제자뿐만 아니라 육신의 자녀도 두었다. 그것도 비교적 유복하게. 재가의 수행자로서 살았지만 그의 붓다관은 그를 올곧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였다고 보인다. 경전 번역을 많이 하거나 불학을 학문으로 하는 재가 학자들에 대해 한 국불교의 출가자들은 그들의 신심을 의심하거나 회의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학문과 신앙의 경계가 분명하게 나뉘지기도 어렵고 그것의 일치를 확인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단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 극단적으로 말하면 종교계 내부의 이단논쟁이나 신심논쟁이, 표면화되지만 앓았을 뿐 종교계에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그 표면은 다를지 몰라도 그 이면에서는 주객의 문제와 내·외부자라는 인식이 전제되기도 한다. 이 면에 있어서 한 법사는 평생을 유발과 염의 속에 재가 법사의 자리를 오롯이 견지했다. 그것이 가능하였던 것은 ‘사심 없음’도 한 몫을 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그의 붓다관이 한 몫을 하였다고 해도

16) 한길로, 『무가애』(예지가, 1990), 머리말.

17) 한길로 역, 『육조단경』(법보원, 1963/1966), p.3.

18) 한길로 역, 『육조단경』, p.3.

19) 한길로 역, 『육조단경』, p.4.

지나치지 않을 듯싶다. 그는 다시 『불교성전』을 편찬할 수밖에 없는 연유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

요즈음 한글대장경을 비롯하여 국역된 불경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들이 고전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에게는 학구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생활의 지침서가 되기에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이다./ ~ 현대어로 바꾸어 놓은 것이 어느 것은 너무 어렵고, 어느 것은 부처님을 너무 인간적인 면으로 보았기 때문에 신앙적인 면이 소홀하게 다루어진 경향이 있다. 부처님을 숭배하는 신앙인들에게는 허전함을 느끼게 하는 서운함이 있다.²⁰⁾

경전 속에 등장하는 불가사의한 이적들에 대해 일부 불교 학자들이 후대의 조작이라든가, 불교의 이적들은 불교문학으로 치부하고 마는 것에 대해 한 법사는 거부하고 있다. 이적들에 대해 다른 종교도 있는 것이고, 오안(육안)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인식의 한계라고 통박한다. 아울러 심령과학에 관심을 기울인 이들이 불가사의한 심령 현상을 경험한 다음 불가사의한 현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례를 들며 불보살과 성현들의 이적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다. 한 법사는 또 이것을 믿음으로 승화하고 있다. “불신력에 대한 믿음을 허구나 방편이라거나 법신을 부처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을 타박한다. 역사적인 실존이 아닌 불보살은 모두 허구이고 형체로 현존하지 않는 것은 결국 없는 것인데 타력 운운하면서 아무 것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관념(관념)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짓이라거나 치졸한 미신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한다.”²¹⁾ “중생의 이 현상계(現象

20) 한길로 편역 교정, 『불교성전』, p.9.

21) 한길로, 『무가애』, pp.28~29.

界)에는 엄연한 차별상이 있음을 알아야 하고 현상이 비록 중생의 힘으로
는 뛰어넘을 수 없는 엄연한 차별의 경계이지만 이것은 중생의 엄연의
차원에서나 있는 실존이지 불보살의 대 초월의 경지인 열반의 차원에서
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데 착안해야 한다.”²²⁾는 것이다.

또 “절대는 자와 타를 초월한 것이므로 사실은 자도 타도 아니며, 자
도 타도 아니므로 보는 견지에 따라서는 자일 수도 있고 타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확연무애한 것이며 융통자재한 것이어서 어느
하나로만 굳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알면 현상만을 고집하지도 않고
현상을 무시하지도 않으며 자력만을 고집하지도 않고 타력만을 고집하
지도 않아서, 이것이 곧 중도인 성불도의 실체가 되는 것이다. 다시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타력신앙을 너무 배격하지 말라는 것이다. 어린아이
가 제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거나 험준한 산을 넘으려면 반드시
어른의 힘을 빌려야 한다. 불보살의 가피력은 바로 어린아이에게 작용하
는 어른의 힘이다. 어른은 어린아이를 위하여 힘이 되어 주었을 때 어른
으로서의 보람을 느끼듯 불보살의 원력은 중생구제에서만 살아 있는 것
이다. 어린아이가 어른의 도움을 청하고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²³⁾
고 한다. 그러므로 “중생의 기원이 순수하고 간절할 때 그것이 불심에
계합되어서, 무변한 중생을 제도하신다는 서원은 서원만으로 그치는 것
이 아니라 현실에 분명한 사실로 작용하여 실지로 중생이 구제되는 결
과로 나타나는 것이다.”²⁴⁾ 이는 “법신의 아들은 법신일 수밖에 없다.”²⁵⁾
는 확고한 붓다관에 의거하여 가능한 것이다. 한편 한 법사는 “기복불교

22) 한길로, 『무가에』, p.29.

23) 한길로, 『무가에』, p.30.

24) 한길로, 『무가에』, p.30.

25) 한길로 편, 『알기 쉬운 불교입문』, p.181.

라 해서 나무랄 일이 아닌”²⁶⁾ 것이라는 현실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법신과 화신이 둘이 아니므로 한 법사는 출산을 하였고, 재가/중생과 함께 살며 법신의 현현인 화신의 삶을 살았다. 그에게는 종교적인 이적이 그리 낮은 것이 아니었고, 종교적 신앙심으로 중생을 제도할 수 있었다. 『삼세인과경』이나 『지장경』을 번역하고 있는 것은 타력적인 신앙, 또는 현실에서 신심이 없이는 믿기 쉽지 않은 경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경전을 번역하여 많은 이들로 하여금 신심을 증장하게 하고 안운을 얻게 하였다고 보인다. 이는 곧 법신과 화신은 두 모습이지만 본원의 자리에서 하나임을 체득한 데서 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출산을 통해 그는 온전히 하산의 목적을 실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 법사는 평생 법사로 살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법사’라는 명칭은 조계종을 중심으로 출가자 중심의 교단에서는 법상에 오르는 출가 승려에게 한정적으로 호칭된다고 할 수 있다. 군법사라고 하지만 정식 명칭은 ‘군승’으로 지칭되고 있을 뿐이다. 비조계종을 표방하는 종단이나 단체에서는 법사라는 호칭이 널리 쓰이고 있고, 부지부식 간에 불교를 아는 이들에게 ‘법사’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현실에서 한 법사는 독특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흔히 자타에 의해 ‘법사’로 불리는 유명 법사는 적지 않다. ‘법사’를 출가·재가를 포함하여 설법 등으로 중생들에게 붓다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이들이라는, 비조계종적인 정의를 수용하면 현재 적지 않은 법사들이 법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한 법사의 삶과 이력은 남다른 데가 적지 않다. 첫째 평생 재가 법사를 지향했다. 둘째 경서의 번역과 저술이 다대하다. 셋째, 특정 사찰을 재창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전법하였다는 점이 그것이

26) 한길로, 『무가애』, p.32.

다. 가히 법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평생 범죄 활동을 하였던 법사들이 말년에 다시 삭발하고 출가자의 모습으로 말년을 회향하지 않은 점은 한 법사가 최고의 자리에 놓여도 무방할 정도라고 할 수 있다.²⁷⁾ 산을 내려와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혹은遁世(遁世)하여 민중들과 함께하며 민중의 수준에 맞추어 불법을 전한 예는 신라의 원효나 13세기 일본의 신불교 지도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대개 삭발한 출가 사문의 모습으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평생을 재가법사로 일관한 법사와 대비된다고 하겠다.

번역과 저술로 볼 때 출·재가를 막론하고 한 법사보다 더 많은 역경과 저술을 남긴 이들이 적지 않지만 출·재가로부터 신뢰와 공인을 받은 경우는 흔치 않다고 생각된다. 초창기 1963년에 범보원에서 번역 출판된 『육조단경』은 이후 흥법원에서 복간되었다. 지형을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십 몇 년이 지난 뒤에 재출간하였지만, 현재 읽어도 무리가 없는 번역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입적하기 3년 전에 출간한 『지장경』도 적지 않게 보급되었다고 보인다. 번역서인 『마음과 몸과 운명』은 십만 권 이상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고 알려졌다. 봉인사를 중창하고 한길정진원을 설립하여 후학을 양성한 점 또한 결코 작은 성과라고 할 수 없다.

재가 법사들은 대체로 당대 힘 있는 데까지 전법에 헌신하다가 사라진다. 하지만 한 법사는 출산 이후 집안을 건사하며 교화의 최 일선에서 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 같은 점에서 보면 적어도 비조계종적인 관점에서 재가법사의 전형을 개척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육친의 아들이자 법의 자식이라고 볼 수 있는 적경의 삭발염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27) 평생 법사의 길을 가다가 환갑 또는 칠순을 전후하여 삭발 염의한 법사로 한정섭 법사였던 활안 스님과 한담 스님이 된 김경만 법사를 언급할 수 있다.

으로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출가와 재가는 결코 둘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III. 명정선의 한길[一道路]

화신은 범신의 현현이라는 불이의 관점은 한길로 법사로 하여금 출산하여 세속에서 평생 수행과 교화의 길을 지탱하게 하는 중심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사상의 바탕 아래 전개된 한길로 법사의 이념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잘 알려져 있듯이 “밝게·바르게·착하게”로 나타난다. 그가 역경이나 편지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용을 알기 쉬워야 한다는 것과 현대인의 생활에 필요한 지침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밝게·바르게·착하게”는 한글을 아는 한국인이라면 드러난 언표의 의미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표어의 이면에 담긴 사상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 이라도, ‘그래 밝게 살라는 거지, 바르게, 또 착하게’라고 수궁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이렇듯이 간명하게 한길로 법사는 대중을 지도하였다고 보인다. 그가 남긴 역·저서는 알기 쉬운 우리말로 쓰였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한길법화>에는 ‘한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한길은 한길 “大道”이요, 한길은 한길 “一路”이다.

우리가 이 길을 걸음으로써,

육체를 나로 이는 소아적(小我的)인 집착(執着)에서 벗어나

우주(宇宙)에 두루하고

영원(永遠)히 생존(生存)하는

진아(眞我)의 영적실재(靈的實在)를 파악한다.

우리는 이 길을 걸음으로써,
참나는 모든 것과 조화(調和)된
하나임을 확인(確認)하고
나도 없고 너도 없는,
오직 하나의 부처로서만 살아간다.

부처가 사는 길은 밝음·바름·착함인데
이것은 한 부처의 본성(本性)이므로
삼위일체(三位一體)다.²⁸⁾

“밝게·바르게·착하게”의 부사형에 대해 ‘밝음·바름·착함’으로 풀이하며 ‘부처가 사는 길’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밝음 = 빛/자유/불(佛), 바름 = 왜곡됨 없는/평등/법(法), 착함 = 배려/평화/승(僧)”²⁹⁾으로 치환하고 있다. 실로 놀라운 반전이다. 밝음을 불의 자리로, 바름을 법의 자리로, 착함을 승의 자리로 해석함으로써 삼보에 대한 해석의 지평을 무한대로 넓혀놓고 있는 것이다. 행위의 부사적인 상태에서 행위로 전의되는 순간 한길로 법사의 불교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길로 법사의 실천적 이념은 실천적 삼보관이 되고, 또 자성삼보가 즉시 구현되게 된다. 그의 저서 곳곳에서 그 이념의 실천을 찾아보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모든 나라의 국법의 근본정신은 이 가장 높고 바르고 보편한 진리인 밝음·바름·착함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³⁰⁾ “우주의 법칙을 지키어 참으로 밝고 바르고 착한 사람이 된다면

28) 적경, <한길법화>(대한불교조계종 봉인사 한길정진원), 2014.7.

29) 寂鏡, 『봉인사』, 화보 p.7.

30) 한길로, 『무가애』, p.99.

이는 곧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우주의 한 복판에 서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부처로서 옛 사람이 말한 ‘높이 비로자나의 정수리 위에서 움직인다[高步毘盧頂上行]’는 경지인 것이다.”³¹⁾

그렇다면 밝음·바름·착함을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경전을 보는 것이다. 한길로 법사가 『육조단경』이나 『반야심경』을 번역하여 한글세대들이 경전을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밝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경전 번역에 임하는 스스로의 입장을 이렇게 논과하고 있다.

그 동안 이 경에 대한 강의서가 많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건 마치 못 장님이 큰 코끼리를 더듬어보고 제각기 만져 본 부분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말한 것에 불과한 정도였다. 나 역시 장님의 한 사람이지만, 나는 다른 장님들과 같은 짓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서 날카로운 칼로 코끼리의 가슴팍을 찔렀더니 드디어 그놈의 염통이 쏟아져 나왔다. 이제는 나는 이 염통에 대하여 나의 소견을 적으려는 것이다. 장님의 말인지라, 염통을 염통이라고 하는 것인지 다른 어떤 내장의 한 조각을 가지고 염통이라고 하는 것인지 이걸 나 자신의 장담만으로는 도리어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그동안 겉으로 더듬기만 하던 것과는 확실히 다른 것이 있으니, 저것과 이것을 종합하여서 코끼리의 온몸을 이해하도록 하자는 것이 이 장님의 충정이다.³²⁾

한 법사 자신 또한 장님의 한 명이라고 겸손해 하면서도 염통을 찔렀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자부라고 하기보다 법을 깨친 이들이

31) 한길로, 『무가애』, p.99.

32) 한길로, 『무가애』, 머리말.

외치는 사자후라고 할 수 있다. 한 법사의 경지는 당대 최고의 역경가의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 역경원장 운허에 의해 확인되고 역경가로서의 한 법사의 입지는 내외에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겠다. 아울러 재가 법사로서 견성암 주지 소임을 맡게 되고 경전 번역에 매진할 수 있게 된다. 비구중심 출가주의가 강하게 불던 당시 조계종의 현실에서 볼 때 한 법사의 견성암 주지 발령은 그 가치를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견성암 주지 소임의 수행으로 인해 현 봉인사와 부도암 사지를 발견하게 되고, 봉인사와 불사리탑 재창의 거룩한 인연이 닿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³³⁾

경전의 번역과 저술을 통해 한 법사는 밝음과 바름과 착함을 드러내고자 한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 때까지는 먼저 알고 말씀하신 선각자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수밖에 없다.”³⁴⁾ 하여 “노정기대로 부지런히 가야만 서울을 참으로 알게 되는 것”³⁵⁾처럼 부처를 이룰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한 법사는 출산하며 참선은 상근기 수행자들을 위한 수행법이라고 언급하였던 것을 앞에서 살폈다. 그렇듯이 가르침의 바름에 대해 분명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무명풍홀기라는 글귀를 보고 선사에게 질문하자 선사는 그윽한 눈으로 나를 잠시 응시한 뒤에 ‘그걸 화두로 하라’고 했다. 이 대답을 나는 지금까지도 감사하게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내 의문에 대한 대답일 수는 없다. 다만 이견 분별지로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그것이 참으로 의심되거든 차라리 화두를 삼

33) 이에 대해 월운의 『봉인사』 간행찬사에 언급되고 있다.

34) 한길로, 『무가애』, p.43.

35) 한길로, 『무가애』, p.44.

으라는 말이 내게 좋은 화두를 준 것이어서 고맙긴 했지만 의문을 조금 이라도 풀어준 답은 아니다.”³⁶⁾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바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근기에 따라 가르침을 시설해야 하고 하근기 중생을 위해서는 자상한 가르침과 염불기도를 권하며 믿음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고 있다. “모든 중생은 한 법신의 전개여서 모두 불자이고, 그러므로 모든 것의 본바탕 생명은 하나이고 본질 생명이 하나이므로 그 성질이 같아서 모두 밝음·바름·착함을 좋아하도록 된 것이며 또 그것들이 서로 어울려서 함께 대 조화를 이룬 공존·공영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모든 것이 서로 밝게 바르게 착하게 살아야만 피차에 충돌이 없고 상극이 없고 서로 돕는 결과가 되고, 이것이 곧 서로를 위한 법칙이기 때문이다.”³⁷⁾ 또 교화라고 해서 무턱대고 돈으로 물질로 해결하려는 것을 경계한다.

인간방생 인간구제를 하는 것은 덮어놓고 돈으로 물질로 구제하는 따위의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를 슬기롭게 관찰해서 제 죄 값으로 받는 것을 받도록 놓아두고 그의 잘못된 마음을 병든 정신을 고치도록 해주어야 된다. 병자를 고치는 것도 약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부터 고치게 하고, 감옥에 갇힌 죄수를 덮어놓고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어야 하며, 가난을 구제하는 것도 덮어놓고 돈이나 양식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실치 못한 마음을 옳게 고쳐주는 것이어야 한다.³⁸⁾

진리의 체득이 진정한 인간구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 “불교를 알기

36) 한길로, 『무가애』, p.69.

37) 한길로, 『무가애』, p.98.

38) 한길로, 『무가애』, pp.164-165.

위하여서는 자구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³⁹⁾고 하며, 마치 “저 동네의 달이 이 동네의 달이어서 그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불교에서 말하는 법신은 하나요, 그것은 원래로 우주에 꼭 차 있는 진리의 본체여서 모든 중생 전체의 부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⁴⁰⁾ 밝게 · 바르게 · 착하게 사는 길은 보살의 길이다. 해서 한 법사는 “보살이 되도록 일꾼이 되도록 가르치”⁴¹⁾고 있다. 또 “기도를 해도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만을, 그리고 남에게 결코 해가 되지 않는 일만을 위해서 ‘부처님 도와주소서.’ 해야”⁴²⁾ 보살의 길이 된다는 것이다. 또 “대승은 보살의 길”⁴³⁾이라고 하며, 이렇게 대승 보살의 길을 제시한다. “무사태평한 산속에서의 편안하고 한가한 생활을 혼자서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계속 거기에 머무는 것을 소승이라고 하는 것이다./ 보살도 초기에는 사친이숙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이 경우는 매우 약한 미숙아를 인큐베이터 속에 당분간 넣어서 기르는 것과 같은 것일 뿐이다.”⁴⁴⁾ 이 같은 인식은, 불신력에 대해 한 법사가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신앙과 기도를 강조하지만 붓다에게 무조건 빌기만을 하는 것을 경계한다. “부처님을 만약 빌어야 돌아보고 무얼 바쳐야 반응이 있는 그런 존재로 안다면 그것은 부처님을 소인배나 탐관오리쯤으로 아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⁴⁵⁾ 그러므로 “불자들도 응분의 정재를 바쳐야 한다. 다만

39) 한길로, 『무가애』, p.165.

40) 한길로, 『무가애』, p.168.

41) 한길로, 『무가애』, p.164.

42) 한길로, 『무가애』, p.163.

43) 한길로, 『무가애』, p.244.

44) 한길로, 『무가애』, p.244.

45) 한길로, 『무가애』, p.171.

이것이 부처님께 무엇을 바라면서 바치는 뇌물 같은 것이어서는 안 된다. ~ 순수하게 올리는 공양이어야 한다.”⁴⁶⁾ 기도와 공양이 신앙의 요체임을 갈파하고 있다.

밝게·바르게·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해서 우선 일어나 앉으라고 하고 있다. “앉기라도 하자. 앉아서 정신을 가다듬으면 곧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⁴⁷⁾ ‘나를 밝음과 바름과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준다고 이처럼 매일 아침마다 10분씩 계속하며, 조조기상’⁴⁸⁾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법사는 평소의 끊임없는 실천을 강조하며, “한 가지만이라도 철저히 하면 도를 이룬다.”⁴⁹⁾고 역설하며, 티끌을 쓸고 때를 없애자(掃塵除垢)는 송추 비구의 설화를 인용한다.

결국 “불교의 생활은 불성(佛性), 즉 생명의 본질인 영혼을 완전히 파악하고 그것을 현재에 완전히 실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니, 그러기 위하여서는 육체라는 것을 영혼본위(靈魂本位)로 종속시켜서, 다시 말하면 육체를 위주로 하는 모든 관능적인 욕망을 적당히 억제하면서 내 영혼의 본성인 양심이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육체를 지배하여 부리는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⁵⁰⁾ 그렇게 ‘밝게·바르게·착하게’의 한길로 삼보를 신앙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같은 길을 가는 한 누구나 같은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⁵¹⁾ 이렇게 ‘밝게·바르게·착하게’ 살아가는 것은 삼보로 살아가는 불자의 큰 길ियो 한 길로 한길로 법사의 실천이념

46) 한길로, 『무가애』, p.172.

47) 한길로, 『무가애』, p.290.

48) 한길로, 『무가애』, p.308~309.

49) 한길로, 『무가애』, p.194.

50) 한길로, 『무가애』, p.361.

51) 한길로, 『무가애』, 머리말 3쪽.

으로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다.

IV. 유업 계승

한길로 법사는 1919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입산하여 수행하고 다시 출산을 통해 중생교화에 나서 고아원 효창의숙을 운영하기도 하였고, 대전 보문고등학교에서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했다. 그리고 한문불전 번역에 남다른 소질을 발휘하였으며, 몸과 마음을 닦는 저술로 중생들의 마음을 치유하였다. 그는 출가 이후 출산을 통해 재가에 안착한 이래 줄곧 재가법사의 길을 걸었다. 이후 1996년 경기도 남양주 봉인사·한길정진원에서 그 생애를 마감했다. 이렇게 한길로 정진할 수 있었던 것은 대승경전의 골자에 대한 탁월한 이해와 깨침으로 말미암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모두 불성의 파동적 작용으로 나타난 존재이므로 차별적인 현상 면으로는 자타의 구별이 분명하나 본질적인 실상으로는 하나로 통한 것이기 때문에 자와 타가 둘이 아니다. 이 둘이 아니라는 법문은 대승경전의 골자로 되어 있다.⁵²⁾

법신과 화신에 대한 불이관은 그로 하여금 출가와 재가의 차이조차 무화하여 평생을 재가법사로 길을 갈 수 있게 하였고, 그에 기초한 실천적 이념으로 하여 불교의 삼보를 ‘밝게·바르게·착하게’라고 탁월하게 해석하여 명정선의 가르침으로 제시하였다. ‘밝게·바르게·착하게’ 살라

⁵²⁾ 한길로, 『무가에』, p.357.

는 교화 이념은 1996년 8월 31일(음 7월 지장재일), 세수 78세로 봉인사·한길정진원에서 입적한 한길로 법사의 유업이 되었다. 한 법사는 유업의 실천과 함께 법신과 육신의 자손들에게 또 이렇게 친필 유훈을 남기고 있다. “돈 벌 생각 말아라./ 의식 해결로 만족하고/ 서로 도우면서 우애 있게 살아라. 봉인사를 교화도량으로 키워라.”

‘돈 벌 생각을 말라’는 유훈은 아마 한길로 법사의 평생 소신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자손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고 수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⁵³⁾ 육친의 자손들에게 안분지족의 경제생활을, 그리고 ‘봉인사를 교화도량으로 키우라’고 부촉하고 있다. 어디에도 사심이 개입되지 않고 있다. 봉인사·한길정진원은 한길로 법사의 유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불사리탑은 전승의 유물이라면 이후 재창된 큰법당, 관음보살의 불유각, 관음상, 삼성각, 지장전 등은 한길로 법사의 이념과 철학과 그리고 유업이 투영된 뜻 깊은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봉인사·한길정진원에서 주지 적경을 비롯한 한 법사의 법신과 육신의 자손들이 유업을 계승하고 유훈을 올곧게 실천하고 있는 것은 한길로 법사의 법력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5언과 7언의 6구로 쓰인 한길로 법사의 열반송은 법손에게 들려주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부촉으로 들린다.

五蘊業雲聚散	오온의 업이 구름처럼 모였다 흩어지네.
一眞身蒼空月	하나의 진신은 창공의 달과 같아
本無始本無終	본래 시작도 없고 또한 끝이 없으니
實相圓明融法界	실상은 둥글고 밝아 법계와 원융 한다.

53) 고등학교 시절 한 법사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한 법사의 장자와 친구라는 국민대학교 권근원 대학원장의 증언에 의하면 이에 대해 불편했다고 한다.

明正善一大路 밝게 바르게 착하게 넓고 큰 한길로
願諸衆生作道伴 원컨대 모든 중생들과 도반이 되라.⁵⁴⁾

모든 중생들과 도반이 되라는 부촉으로 끝맺고 있는 이 계송은 한길로 법사의 생평과 사상·이념이 잘 갈무리되어 있다. 이제 한길로 법사는 입적하고 그 유훈은 법손들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그리고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다. 봉인사·한길정진원에서는 일상적인 법회와 기도를 위시해 위빠사나 수행, 지장기도, 임야 입양불사, 예술제 등 다양한 방면으로 교화하라는 유훈이 이어지고 있으며, 한길로 법사의 법력은 앞으로도 봉인사·한길정진원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한길로 법사의 입적이 20년이 지났다. 곧 2016년의 기신(忌辰, 음력 7월 19일)이 다가온다. 오롯이 한길로 정진한 법사의 높은 법력이 이제 한국불교계로 향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보인다. 며칠 전 하버드대 출신 출가자, ‘푸른 눈의 수행자’로 널리 알려진 현각(독일 불이선원 선원장)이 한국불교와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이유는 한국불교가 돈에 물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며칠 전 어느 불교 철학자는 “붓다는 젊어야(young)”한다고 갈파했다. 두 인사의 선언은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하고, 젊은 불교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을 것이다. 욕심을 버리고 사심 없이 수행과 교화에 평생을 매진한 한길로 법사의 삶과 가르침은 이 같은 선언에 잘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턱없이 부족한 글말로 평생을 역경과 교화의 한길을 한길로 정진한 대 법사의 법신사상과 명정선의 이념을 정리하고자 한 만용을 참회하며 교화와 법력에 화남[예경]하며 글을 맺는다.

54) 寂鏡, 『봉인사』, p.127.

참고문헌

- 불교성전간행회·한길로 편역 교정, 『불교성전』(보림각, 1981/1982).
성진편찬회, 『불교성전』(동국역경원, 1972/1978).
惟圓 原著·前田 龍 譯; 田大錫 옮김, 『歎異抄』(경서원, 1997).
寂鏡, 『봉인사』(천마산 봉인사지 편찬위원회, 2005).
지선 편, 『五種梵音集』(『한국불교전서』12, 동국대출판부).
平川彰 外 編; 鄭承碩 譯, 『大乘佛教概說』(김영사, 1984/1995)
통일불교성전편찬위원회, 『통일불교성전』(대한불교진흥원,
1992/1994).
한길로, 『무가애』(예지가, 1990).
한길로 편, 『알기 쉬운 불교입문』(보림각, 1979/1983).
한길로 역, 『육조단경』(법보원, 1963/1966).
- 적경, 〈한길법화〉(대한불교조계종 봉인사 한길정진원), 2014.7.
〈불교신문〉 ‘재가열전’, 2005년 1년 연재.
〈불교신문〉3044호, 2014.9.27. [근현대불교출판 역사].

Hangil thought of the Dharma teacher, Hangilro

Lee, Seongwoon / Research Professor at Dongbang Culture Univ.

This writing considers the idea of the teachings of the Buddha-Dharma of the Dharma teacher, Hangilro which literally means he who has walked the path of a truth-seeker ‘on a main road’. He was born at Cheongyang, Chungcheongnamdo Province in 1919 and passed away at Hangiljeongjinwon in Bongin temple, Namyangju in 1996. He joined a Buddhist monastery at the age of 17 and devoted his life to the instruction and deliverance of sentient beings and the translation of scriptures. We can say that his excellent understanding and realization of Mahāyāna Buddhism made it possible for him as a lay dharma teacher.

His view of Non-duality(不二) for Dharma body and Transformed body makes no difference between the laity and the clergy, which led him to keep Dharma teacher as a laity for his lifetime. He explained the three jewels in Buddhism to ‘Bright · Right · Good(明正善)’ and suggested it as a practical ideology. He claimed that in order to live a ‘bright · right · good’ life, above all, we have to get up and sit up. He put emphasis on ‘daily

practice’ with saying ‘we can stand up as soon as we sit up and calm ourselves down’. This is the Buddhist great way we live a life as the tree jewels which leads anyone to the common destination, we can say that his idea shows the practical view of the tree jewels.

His entrusting as the hymn of Nirvana, ‘be the bright · right · good companions of the Way with all sentient beings on a main road, broad and wide, continues through Bongin temple and Hangiljeongjinwon.

Key words: the Dharma teacher, Hangilro, Bright · Right · Good(明正善), the teachings of the Buddha–Dharma, the translation of scriptures, Bongin temple, the practical view of the tree jewels

원고접수: 2016. 12.15	심사완료: 2016. 12.20	게재확정: 2016. 12.24
-------------------	-------------------	-------------------